

권력기관 갈등 조기 진화...부동산 등 민생문제 집중 의지

주요 사안별 발언 배경

“여론이 우선”...사면론에 선 그어
 “월성원전 수사 정치적 목적 없어”
 “안정화 성공 못해”...부동산 사과
 바이든에 남북관계 개선 기대
 아동 학대 대책은 논란 부르기도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전직 대통령 사면 등 민감한 현안을 다루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정치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이날 기자회견 직전까지만 해도 문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에 대해 신중하면서도 일부 여지를 열어두지 않느냐는 관측이 있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지금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확실히 선을 그었다. 더불어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꺼내든 사면론에 대해 여론 지지층의 반대가 심각하고 심지어 중도층에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강하다는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 대표와의 사전 교감설 등 사면론을 둘러싼 온갖 추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검찰과 갈등 지양=문 대통령은 월성 원전을 둘러싼 감사원의 감사나 검찰의 수사에 대해 “정치적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심 이반과 국론 분열을 부채질하는 청와대와 권력기관 간의 갈등을 조기에 진화하고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규정하며 힘을 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다시 사과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

은 그동안 최재형 감사원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던 여당 지도부와 온도차를 보인다. 집대에서는 추후 당정 관계 등에 변화도 거론하고 있다.

◇부동산 문제 해결되나=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투기 방지에 역점을 뒀으나 결국 부동산시장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11일 신년사에서 “국민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실상 첫 사과를 한 데 이어 부동산 정책에 한계가 있음을 다시 인정한 셈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날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주택 물량을 늘리겠다”고 했다. 투기 억제 기조는 유지하면서 정책의 무게중심을 규제 중심에서 공급확대로 옮길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남북관계 성과 거두나=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언제 어디서든 만나겠다”며 비대면 만남을 포함한 모든 소통 가능성을 타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임기 내 남북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도 “올해 집권 5년 차이기 때문에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 꼭 해보고 싶은 일”이라고 절박한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특히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 남북관계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인식도 내비쳤다.

◇코로나 19 방역 자신=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확보와 관련해 “백신은 충분히 빨리 도입됐고, 충분한 물량이 이미 확보됐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월부터 시작해 9월까지 집중이 필요한 국민을 대상으로 2차 접종까지 마칠 계획”이라며 “4분기에 누락된 대상에 대한 접종을 마쳐 하면 11월에는 집단 면역이 완전히 이뤄지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어느나라보다 앞서서 방역에서 성공을 거두고 위기를 극복하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에게 조금 더 힘을 내주시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대책 논란=문 대통령은 아동학대 재발 방지 대책을 설명하면서 “일정 기간 안에는 입장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를 위축시키지 않고 활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화상대회 방식으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내 현안들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화하면서 아동을 보호하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아이를 반쯤하라는 것이냐”며 대통령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청와대는 입양 활성화 위해 ‘사전 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의미인데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언급을 입양 특례법상 파양으로 오해한 보도들이 있는데, 아이를 파양시키자는 것이 전혀 아니다”고 부인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정총리 “문 대통령 생각은 개혁 완수...뒷받침에 전력”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문재인 정부의 개혁 과제를 완성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내각이 합심해 전력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의 생각과 주장은 단호하면서도 명쾌했다. 남은 1년 동안 반드시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거리두기는 코로나를 차단하기도 하지만 국민 서로 간의 생각을 단절시키기도 했다”며 “그동안 적지 않은 갈등이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그동안 국론을 어지럽히던 검찰개혁과 사면, 재난지원금의 지원 방식, 부동산과 이익공유제, 논란의 중심이던 현안 과제에 대해 대통령은 확실한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는 지난 1년 동안 매우 주례회동을 통해 대통령과 함께 공유하고 의논했던 내용이 있었지만 국민 모두가 공유하고 확인할 수 있어서 뜻깊은 자리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의 회견을 보니 남은 1년이 문재인 정부는 물론이며 포스트코로나로 우뚝 서서 새롭게 탈바꿈하는 대한민국 변화의 시작이라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민주당 “소통 노력 돋보였다”...국민의힘 “허무한 120분”

여야 반응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온·오프라인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과 소통하려는 대통령의 노력이 돋보였다”고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은 비판 일색의 평가를 내렸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날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해 솔직하고 소상하게 설명했다.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대책도 다양하게 제시했다”며 “국민이 희망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전 국민 백신 무료접종과 연내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했다”며 “K방역이 세계 최고의 모범 국가 위상으로 이어지도록 초당적인 정치권의 협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 ‘대전제는 국민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공감하고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또 “연초 당 지도부는 당사자의 진정한 반성과 국민 공감대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대통령 말씀은 당 지도부 입장으로도 일치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이 듣고 싶은 말보다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로만 채운 ‘허무한 120분’이었다”며 “이런 거면 왜 회견하셨나”라고 비판했다. 특히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문 관련 언급에 대해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임했던 문 대통령은 피해 여성의 2차 피해를 ‘주장’이라 언급하며 안타깝다는 말 뒤에

숨었다”고 꼬집었다.

대북 이슈에 대해서도 “북한의 핵 증강은 평화구축담이 성사되지 못해서는, 국민보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말로 같았다”고 말했다. 부동산 현안 발언에 대해서도 “부동산은 세대 분할 때 문이라며 ‘뺏’하는 데 긴 시간을 할애했다”고, 백신 접종 언급에는 “우리 식약처 허가된 제품 안전하다는 정신승리만 외칠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사전 질문 없이 지난해와 올해 주요 현안에 대해 대통령의 입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안하느니만 못한 사면 논란을 조기에 수습했다면 더 나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재명 “지방정부 차원 재난지원금 지급 대통령이 동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과 관련해 “코로나19로 인한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이해해주시고 수용해주셨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 대통령님께서 최근 보수언론과 충돌 개혁 방에 세력의 시비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살리기에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몫이 있고, 지방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몫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쌍끌이’ 노력이 나라 경제를 지켜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재정 능력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경제 방역과 민생 방어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정부 차원의) 4차 지원금을 말하기에는 너무나 이른 시기”라면서도 “정부의 재난지원금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 경우 지역 차원에서 보완적인 부분은 지자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7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한번쯤 생각해 보세요!

- ☑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아프고 저리며 통증이 있다면... **허리디스크?**
- ☑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다... **목디스크?**
- ☑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무릎이 자주 붓는다면... **퇴행성 관절염?**
- ☑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 어려워진다... **회전근개파열?**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첨단우리병원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특 특

백내장 오인하는 익상편, 원인과 치료

- ◆ **익상편이란?**
익상편은 주로 안구의 내측 결막(흰자위)에서부터 각막(검은동자) 쪽으로 섬유혈관조직이 증식되어 침범, 진행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익상편은 '군날개'라고도 하며, '백태'가 낀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 ◆ **증상**
흰색의 섬유혈관성 조직이 검은자를 덮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미용상 문제가 되는 것 외에 문제는 없으나, 간혹 심한 경우 난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진행이 많이 되어 동공(애기동자)까지 침범했을 경우에는 시력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곤하고 눈이 자극받으면 충혈이 유난히 심해지기도 합니다.
- ◆ **치료**
익상편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증상에 따라 증상의 호전을 위해 약물치료를 합니다. 그렇지만 약물치료로 익상편 자체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각막을 많이 침범하지 않은 대개의 경우는 경과 관찰만 하면 되고, 진행이 많이 돼 동공 근처까지 침범한 경우에는 시력보호를 위해 수술로 제거하게 됩니다.
- ◆ **수술방법**
익상편 수술은 국소마취로, 약 30분 정도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통증과 이물감이 있을 수 있으며 약 한 달간 간헐적인 통원치료를 해야 합니다. 수술 시기의 결정은 동공까지 익상편이 침범했을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시행하여야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환자들의 생활에 얼마나 지장을 주느냐를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